

함평군, '글로벌 음식문화체험 교육' 성료

군민 20여 명 대상...다문화가정 인식 개선 기대 일식·베트남식 등 4개국 요리 총 5회 걸쳐 진행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음식문화 체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6일 군에 따르면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플라워푸드교육장에서 군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음식문화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각국의 식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관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일식, 중식, 베트남식 등 4개국의 요리들을 배우는 과정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기자



영암군, 추석 명절 재난형 가축 질병 방역 총력

비상상황실 운영 통해 유사시 신속한 초동 대응에 만전

영암군은 추석 명절 연휴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D)와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

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의 양돈농가에서 시작되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2건이 발생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양성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장거리로 전파되는 양상이다.

이에, 군에서는 비상상황실 운영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농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과 점검 등의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귀성객께서는 고향 방문 시 축산농장 출입을 자제하고 별초·성묘에 참여했을 경우 축산농장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양돈농가에서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9월 8일, 13일 실시하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모든 양돈농가가 스스로 동참하여 청정 영암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지역 농가 돕기 위한 쌀 소비 촉진 교육 실시

무안군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해 쌀가루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보급과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교육은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요리를 직접 보급하고 조리하는 영양교사, 조리사,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프로그램은 쌀 가공품을 통한 소비 확대를 위해 쌀의 기능과 특징 등 기본이

론, 쌀가루로 만든 담백한 베이커리 실습 등 3개 과정으로 진행 중이다.

교육 참여자들은 이중 쌀가루로 만든 제과 제빵에 대해 최고의 만족도(98%)를 나타냈다.

또한 군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요리 교실을 통해 쌀 중심의 우리 식문화를 이해하고 바른 식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뮤직플레이, 전국오디션 본선 참여자 확정

546개팀 예선 거쳐 20개팀 선정...미스트롯·싱어게인·히든싱어 출연자도 참여

'K-뮤직의 산실, 목포뮤직플레이' 개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경연을 전국 최초로 축제에 접목시킨 '전국 오디션 경연대회'의 예선 2차가 지난 3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예선 2차는 참가신청자 546개팀 중 예선 1차에 통과한 60개팀이 참여해 준결승에 참여할 20개팀을 선정하는 자리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행됐다.

경연에는 가수 데뷔자를 비롯해 미스트롯(TV조선)·싱어게인·히든싱어(이상 JTBC)·너의 목소리가 보여(tvN)·편애중계(MBC) 등 인기 프로그램 출연자, 유명 유튜브 음악방송 운영자, 음악앨범 제작 발매자 등 전국의 걸출한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해 단순한 경연대회 수준이 아닌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수준높은 공연을 펼쳤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처럼 경연 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개인별로 심사평을 전해 당락을 떠나 모든 참여자가 앞으로의 음악세계를 구축해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예선 2차를 통과한 참여자 20개팀은 서울·경기 13개팀, 전라 5개팀, 강원·광주 각 1개팀으로 목포는 2개팀이 통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 10개팀, 30대 6개팀, 40대 3개팀, 50대 1개팀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목포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경연대회 참여자들의 수준이 높아 놀랐다"며 "목포뮤직플레이가 목포의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아 K팝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선정해 추진하는 '전국 규모 오디션 경연대회'준결승과 최종결승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목포뮤직플레이 축제 현장(9.30~10.2)에서 펼쳐지며, 이견우·홍진영·손문현·박현우·위중수 등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심사위원단 평가(80%)와 국민심사단(20%)평가로 최종 TOP5를 선정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 청소년, 전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서 수상

신안군은 지난 2일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이 주관하는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단체부문에서 전라남도지사상, 전라남도교육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는 전라남도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매년 개최되는 정책제안 대회로, 신안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3팀이 참가 ▲장애고등학생을 위한 통학지원 확대(너발도 팀) ▲도시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문화활동 개최(대기만성 팀) ▲지역사회 환경보호활동 인식개선 제안(우리는 모두 환경보호자 팀)의 정책을 제안하여 이 중 너발도 팀이 전라남도지사상을, 대기만성 팀이 전라남도교육감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제안으로 평가를 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대회로 청소년 스스로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으로 제안하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영광군 복숭아연구회 우수시군 선진지 견학

전북 남원시 벤치마킹

영광군은 최근 복숭아연구회 및 재배희망농가 대상으로 전라북도 남원시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현재 복숭아 시설재배의 주산지로 7월 노지복숭아가 출하되기 전 5~6월 단경기 생산을 통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이점을 벤치마킹하여 주산시군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영광군은 2021년부터 신규 소득작목 발굴의 일환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복숭아 품종 3가지를 시설내부에 식재하여 5.2ha의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26년까지 10ha이상의 면적확보를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복숭아 시설재배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는 나무가 도장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세관리를 유지하고 시기에 맞는 적절한 가을전정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